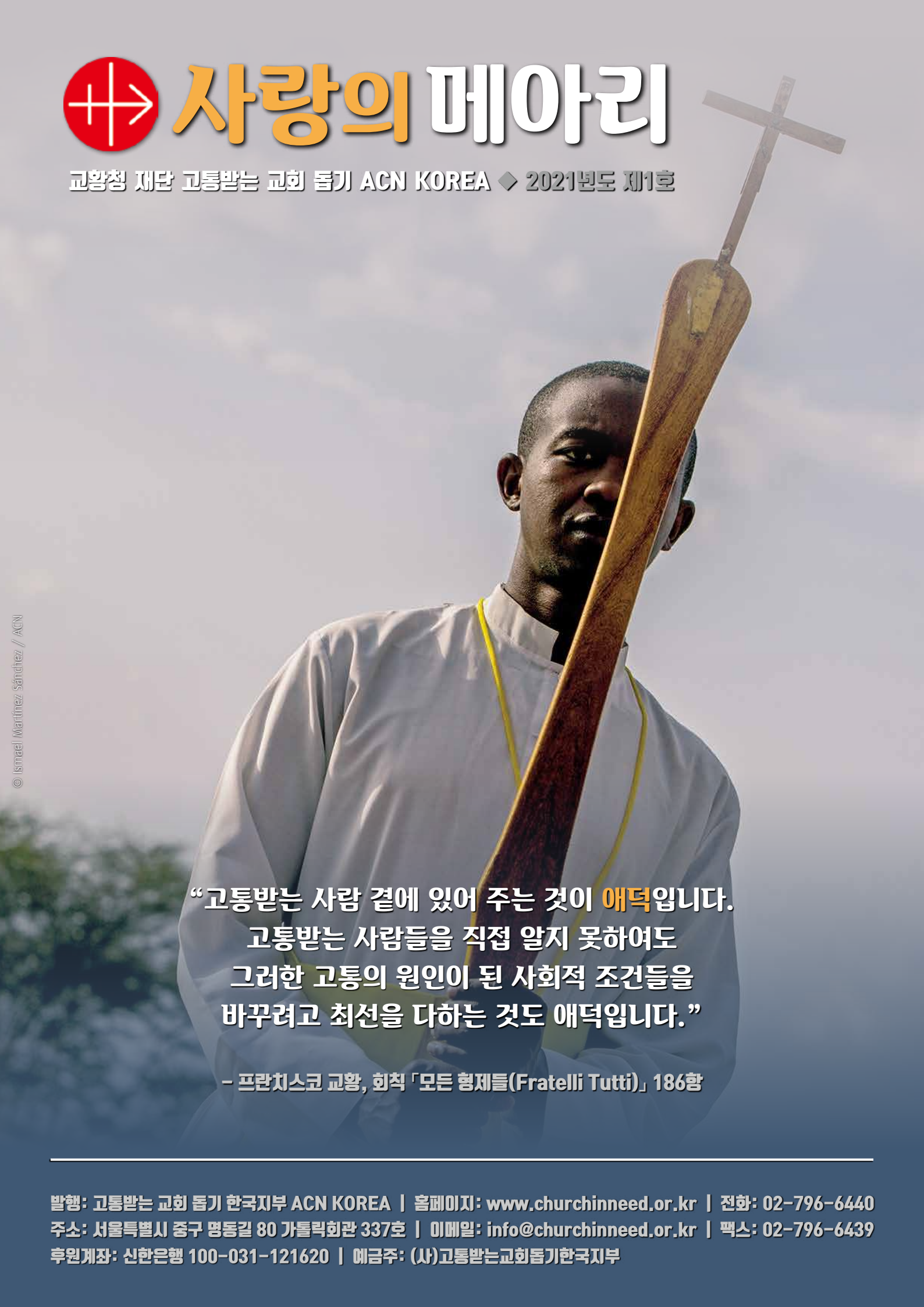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21년도 제1호



© Ismael Martínez Sánchez / ACN

"고통받는 사람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애덕**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알지 못하여도
그러한 고통의 원인이 된 사회적 조건들을
바꾸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애덕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186항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 전화: 02-796-644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피아첸차 추기경의 사순 메시지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부활을 기다리는 거룩한 이 사순시기에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사도들의 심경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과 명망에 있어서 완전하고 냉혹한 패배였으며, 그들 자신에게도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집과 일, 사회적 환경, 지인과 친구를 모두 떠났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떠나왔는데, 이제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주어진 지혜 덕분에 예루살렘에서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사실은 하느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얼마 후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헤로데와 본시오 빌라도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 곧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없애려고, 다른 민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이 도성에 모여,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으로 예정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였습니다."(사도 4,27-28)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계속 폭력을 가하려 하는 새로운 헤로데와 본시오 빌라도의 계획적 행동을 목격합니다. 직간접적으로 법률 등을 통해 사회 안에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없애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선교적 특성을 억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초기 복음이 전파된 국가들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 문명의 뿌리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국제단체도 이용하며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에 사로잡힌, 아마 악하기보다는 무지하다고 할 수 있을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을 건설한다는 표면상으로 긍정적이고 매혹적인 말들에 숨겨진 전략을 알아채지 못하고 속게 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맙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모든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세례 받은 그대로 살아갑시다. 수많은 매체들이 반대되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과 사건들을 그분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분의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의견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삶과 가정, 교회, 지구의 보호,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적극적인 애덕 실천, 요컨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에 적용하십시오. 이번 사순시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행동을, 그분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그 이상들로 가능하면 가깝게 이끌어 갑시다.

이러한 각오로 자애로우시며 꿰뚫어 보시는 어머니로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성모 마리아의 보호 하에서 부활을 향한 은총 가득한 여정을 나아가시길 빕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ACN 재단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Card. Mauro Piacenza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올해 사순시기는 바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의 결과들과 싸워야 하는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가 멈춰서서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일부를 이루고 있는 이 사회가, 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바르게 수행했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각 나라의 상황에 집중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배척이 커져 가는 상황에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생존권을 다른 권리와 바꾸려는 시도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눈에 띄게 차별하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몇십 년 후 미래의 어린 세대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요? 여러분은 그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것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 시기를 이용하여 걷잡을 수 없는 시대정신에 반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2021년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되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도 그럴수록 분명히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 주실 수 있는 분, 하느님을 희망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직접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제의 손으로 축성된 빵과 포도주 형상 안에서 살아 계신 주님께서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현존하심은 2020년 10월 10일,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시복된 10대 청년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을 형성했습니다. 아쿠티스는 1991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유복한 가정의 외아들로 밀라노에서 성장했습니다. 일곱 살에 한 첫영성체가 소년의 마음에 성체를 향한 깊은 동경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성체를 모시기 위해 매일 미사에 참례했고 “언제나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는 것, 그게 제 삶의 계획이에요.”라며 성체에 대해 “하늘나라로 가는 나의 고속도로”라고 말했습니다. 아쿠티스는 열다섯 살에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2006년 10월 12일에 선종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바로 아시시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복자 아쿠티스는 운동복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모습으로 아시시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온전히 하느님께 귀속되기 위해 자신의 값비싼 옷을 벗어 놓은 곳입니다.

모든 젊은이가 그렇듯이 아쿠티스는 컴퓨터 세계에 매료되어 있었으며, 알고리즘과 정보 처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체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한 살에 ‘성체의 기적’이란 웹사이트(www.miracolieucaristici.org)를 제작하여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일어난 136건의 성체 기적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미사의 가치를 제대로 상세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햇볕을 쬐면 피부가 갈색으로 그을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머물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겠지요.” 복자 아쿠티스의 삶 자체가 그 증거였습니다. 아쿠티스의 사촌 플라비아는 결코 그가 슬퍼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슬픔은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이지만, 기쁨은 하느님께로 향한 시선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신비로운 기쁨이 일 년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부터 여러분도 복자 아쿠티스가 자신의 병을 하느님께 바친 것처럼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특히 미사 중에 지상의 우리에게 주님을 모시고 오는 모든 사제들을 위해, 고통의 상황조차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힘을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성체성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되고자 하는 신학생들을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며

펨바의 난민 캠프

주님 탄생 예고와 마리아의 순종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요셉의 꿈에서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 주셨고,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보편 교회의 수호자 성 요셉' 선포 150주년을 맞아 반포한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Patris Corde)」에서 "구원의 역사에서 요셉의 핵심적 역할"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요셉 성인은 숨겨져 있거나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이 구원 역사에서 비할 데가 없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모잠비크 펨바 교구의 성모 영보 수녀회 수녀들은 성 요셉과 마찬가지로 숨겨지고 그늘진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수녀들은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과 다른 성직자들이 사목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가장 먼저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도시와 마을을 공격하면서 목숨만 겨우 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와 살인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피난이나 자연재해로 재산을 잃고, 자신의 삶과 꿈이 파괴되어 영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방황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실향민이 된 이들은 모잠비크 북부 인구 수의 20%가 넘으며, 대부분 20세 이하입니다. 자신의 고향과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희망을 잃고 미신에 빠지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아파레시다 수녀와 펨바 교구장 루이스 페르난도 리스보아 주교는 사람들에게 영적,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협력자들이 먼저 그 능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들은 4일간의 심화 과정을 통해 심리 및 사회 상담의 입문을 거치고,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며 상처받은 영혼에게 새 희망을 주는 방법을 배웁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50명씩 6개 그룹으로 나뉘어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사목 활동입니다. 부서진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의 상처를 아물게 하려는 것입니다. **ACN은 교육 과정에 필요한 교통과 숙박, 식사, 교사와 수강생을 위한 교재 등의 비용으로 약 2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손에 쥔 지팡이처럼

옥타브 신부

"저는 아직 아주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고 땅에 묻히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제 사진입니다."

옥타브 신부가 편지와 함께 자신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올해 84세인 그는 **콩고 민주 공화국** 베니의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매일 빵과 포도주를 성체와 성혈로 변화시키면서, 그는 여러분의 지향을 기억합니다. "미사 예물 지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지 56년이 된 그는 나이 때문에 앞으로 움직이기도 매우 힘들지만, 이러한 "사제 사랑의 표현"으로 2021년에도 성직자로서의 봉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옥타브 신부는 그것이 "여러분이 제 손에 쥐어 준 지팡이" 같다고 말합니다.

만남의 집 재건

폐허가 된 주교관, 다시 희망을 상징하는 곳이 되도록

치유하는 헌신적 사랑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헬레네 수녀

여성들에게 재봉 기술을 가르치는 닐리마 수녀

"이슬람 공화국인 이곳에서 수녀님들은 하느님 사랑의 얼굴과 같습니다."

모리타니아 누악쇼트 교구장 마르틴 하페 주교는 이렇게 말하면서 지체 장애와 다른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센터에서 일하는 뤼실 하비마나 수녀와 셀리나 조제파 나타넥 수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한, 교도소를 방문하여 수감자들에게 자신의 존엄성을 확인시켜 주는 아니타 마르티스 수녀와 이사벨 마르코 수녀, 젊은 어머니와 임산부에게 갓난아이를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힐다 그라버 수녀와 마리아 로페즈 수녀, 이동 병원에서 응급 처치 및 치료를 담당하는 수잔느 마리 페핀 수녀와 조제트 나나 수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헬레네 마리 디오 수녀와 쿨레트 부반느 수녀까지, 그 명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총 8개의 수도회 소속 수녀 31명은 이처럼 매일 한결같이 헌신적으로 이웃 사랑의 봉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리타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 하나이며, 수 세기 전부터 인구의 100%가 이슬람교를 믿어 온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이슬람교는 수녀들의 활동을 최소한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녀들의 활동이 도움이 되고 생명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수녀들은 사랑의 증거로서 수많은 모리타니아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며, 특히 모리타니아의 여성들에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깨닫게 합니다. 수녀들은 무일푼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후원으로, 수녀들은 그 헌신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페 주교는 2021년에도 ACN에 수녀들의 생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ACN은 수녀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약 3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치유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루카 7,22)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느님 사랑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은 수녀들의 활동을 통해 모리타니아의 사람들에게 하느님 사랑의 얼굴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이 반군들은 도적떼일 뿐 종교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약탈을 위한 구실일 뿐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주교회의 의장 네스토르 데지레 응온고 아지아그비아 주교의 이 말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현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종교 간 갈등이 아닙니다. 반군 집단은 3분의 2 이상이 해외 용병이며, 국가의 천연 자원과 가벼운 약탈물을 노립니다. 교회에는 이제 그들이 가져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린다오 교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아주 작고 연약한 식물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간의 대화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주로 교구 주교관에서 열리는데, 성당이 공격 받으면서 이곳도 크게 파괴되고 약탈당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그 실질적인 의미 때문에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주교관은 교구 사람들에게 만남과 도움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협력의 상징이며, 교회가 궁지에 처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의 징표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임시변통으로 만든 작은 방들에서 교구 사제 대부분이 머물고 있습니다. 판자로 칸막이를 세운 각 3㎡ 크기의 초소형 방은 대화를 나누기에 너무 작고, 숨쉬기에 너무 좁으며, 지속적으로 거주하기에 갑갑한 곳입니다. 주교관의 복구 공사가 알린다오 교구 사제들과 신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입니다. **ACN은 약 1억 1050만 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예수 성심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차드의 마티외 신학생

전 세계 가톨릭 신자는 13억 5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약 18%를 차지합니다. 주교는 5,377명, 사제는 41만 4천 명입니다. 미래는 신학교에 달려 있습니다. 11만 6천 명의 젊은이가 신학교에서 사제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신학생 8명 중 1명이 여러분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학생이 공부하며 기도하는 곳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전체 인구 350만 명 가운데 무슬림이 95%이며, 그리스도인이 이제 겨우 1%인 **차드**의 몽고 대목구에도 신학생 6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티외, 아폴리네르, 장바티스트, 엠마뉘엘, 루이, 그레고리 마리입니다. 몽고 대목구 총대리는 "신학생들은 이 나라와 시골 생활을 잘 압니다. 그들이 복음을 생활 속으로 전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국토와 비슷한 크기의 면적을 관할하는 몽고 대목구에는 6개 본당이 있습니다. 교통로는 저개발 상태이며, 수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흉작만 거듭되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생들의 양성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자국인 사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ACN은 신학교의 재정 부족을 메울 수 있도록 약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 이논고 교구의 신학생 57명도 지역의 빈곤, 코로나19 대유행, 장거리 이동과 같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꺾이지 않습니다. 조엘 응젠자 신학생은 사제의 수단을 보고 이 사랑에 불이 붙었습니다. "생전 처음 신부님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하얀 수단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응젠자가 막 열 살이 된 해였습니다. "신부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 감격하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구세주께서 우리 한가운데 계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사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똑같은 것을 하려 합니다. "사제 양성 과정은 제가 사제직의 신비를 이해하고 예수 성심을 따라 살도록 도와줍니다."

페르디낭 이켈라 신학생 또한 사제의 모범을 통해 자신의 성소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여덟 살이었을 때 자신의 본당 사제가 생활하고 활동하는 방식이 깊은 감명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고, 저도 신부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이켈라는 사제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학교에 가고, 매일 미사에 가야 한단다. 그리고 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으면 신부님과 의논해야겠지." 이켈라는 본당 신부와 면담 후 교리 수업을 듣고 세례를 받고 소신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소신학교를 떠나 대신학교에 진학하는 데 필요한 돈이 없었습니다. 교사였던 이켈라의 아버지는 그동안 실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신학교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재산을 팔았습니다.

이논고 교구장 도나티앵 바푸이딘소니 주교는 이켈라와 다른 신학생들을 위해 백방으로 도움을 구하며 ACN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ACN은 이논고 교구 신학생 57명을 돕기 위해 올해 약 3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어떠한 성소도 저절로 생겨나거나 혼자 자라지 못합니다. 성소는 하느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고 믿는 이들의 좋은 땅에서 형제애를 경험하는 가운데 싹을 틔웁니다."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야기합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 이논고 교구의 신학생들

지식은 평화의 토대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은 미래의 삶에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 깨달음의 맛보기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통찰은 성인의 다음 선언과 같이 가야 합니다. “당신께서 다른 사람들 안에 불붙이려 하시는 그것이 당신 안에서 타오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나이지리아 중부 조스대교구 성 아우구스티노 신학교의 오두 존 피터 신학생은 자신의 의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시 약사가 될 것인지 사제가 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그는 양쪽에 모두 지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입학 허가를 결정하는 곳이 그에게는 하느님의 부르심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교구에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피터는 처음 신학생 수단을 입었을 때 “천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올랐고, 가능하면 하느님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사제 양성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앙 관련 서적들은 한 차원 더 깊은 지식의 원천이었으며, 피터를 사로잡았습니다. 도서관은 다른 신학생 342명과 마찬가지로 그를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 주었습니다. 깨달음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도서관은 신학교의 발전소이자 신학생들의 “영적 운동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이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낡은 책들을 새것으로 바꾸고 계속 보완해야 합니다. 내면 생활과 관련된 고전 작품, 성 마더 데레사 또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등 현대 성인들의 증언과 몸의 신학에 대한 서적이 최근에 보충되었으며, 비교 종교학이나 문화와 문화화에 대한 서적의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보코하람’과 같은 종교적 극단주의 단체의 위협이 증가하는 나이지리아에서 신학생들이 추후 사제로서, 사목자로서 활동하며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려면 특히 이슬람교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식을 획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학생 수가 많은데다 스터디 그룹 등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책이 10부씩 필요하게 됩니다. 할인을 많이 받더라도 새 책 구입 비용이 상당합니다. **ACN은 약 3250만 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조스 신학교 맞은편의 이슬람 사원

말리 바마코에 있는 ‘이슬람 그리스도교 교육 연구소(IFIC)’는 서아프리카 사람들 안에서 이웃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 또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와하브파나 지하드처럼 이슬람의 급진적인 형태들이 주변 지역을 장악하면서 그리스도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이웃들을 배척하도록 온건파 무슬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IFIC는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을 이슬람교와 아프리카 토착 신앙과의 대화에 있어서 가장 최신의 발전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약 150명의 참가자가 와서 1년 동안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데, 그중 절반이 성직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교육생과 교수들의 주거 공간과 붙어 있는 강의실이 있다면, 지역 내에서 평화를 장려하는 IFIC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대화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현재 건물을 건설할 부지는 마련되어 있지만, 건물 건축을 위한 자금이 부족합니다. **ACN은 약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식은 평화의 토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에서 “새로운 선포는 신자들에게, 냉담 교우들과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신앙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맛보며 복음화 과업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해 줍니다(11항).”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지키는 신학생들

말리 IFIC의 강의 모습

신학생 보호를 위해

마이클의 장례 미사 후 운구 행렬 I 새로 쌓아올린 담벼락의 일부분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시편 51,3-4)

1년 전, 마이클 응나디 신학생의 장례 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2020년 1월, 그는 **나이지리아** 카두나 대교구 착한 목자 신학교에서 다른 신학생 3명과 함께 납치당했습니다. 신학생들이 자신의 가족과 성탄 대축일을 보내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신학교 학장 하빌라 다보 신부는 권총을 들고 무장한 극단주의자들이 야간에 침입하여 공동 침실로 들어가는 문을 부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신학교 경비대가 급히 쫓아오는 소리를 듣고 신학생 4명을 인질로 붙잡아 달아났습니다. 신학생 3명은 몇 주 후에 석방되었지만, 응나디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형제를 위한 카두나 신학생 268명의 비통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납치 사건 이후로 신학생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졌으며 두려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신학교를 둘러싼 울타리가 있지만,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으며 경비들이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착한 목자 신학교가 있는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은 그리스도인이 소수인 곳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의 테러가 도처에 도사리며 지역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학교에 더 높은 담벼락을 세우려 했지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형편은 마찬가지이나 주교들은 이제라도 다시 담장을 높이고자 합니다. 신학생들은 물론 교수, 직원 등 신학교에 있는 모든 이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보 신부는 믿음이 아직 굳건치 못한 일부 신학생 안에서 두려움에 신학교를 떠나려는 마음이 생길까봐 걱정했습니다. "지금도 신학생들이 취침하러 들어가기 전에 보안요원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튼튼한 보호벽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분위기가 더 진정될 것입니다.

ACN은 대체로 울타리나 보호벽을 만드는 일에 재정을 지원하지 않지만, 카두나 대교구의 상황은 예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종교적 극단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와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성소에는 은총의 햇빛과 지식의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CN은 3000m 길이의 담벼락을 세울 수 있도록 약 5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0m에 약 19만 원씩, 신학생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며 나이지리아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웃 사랑을 위해

잠비아 루사카 대교구 성 도미니코 신학교 학장인 케네디 세케타 신부는 진심이 담긴 감사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ACN이 지원한 새 차량은 잠비아의 11개 교구에 투입되어 신학생들이 사목 실습을 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문적으로만 배웠던 것을 실제적인 이웃 사랑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학생 29명이 사목 실습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36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평가를 맡고 있는 지도 교수는 해마다 한국의 7배 크기나 되는 잠비아에서 30개 이상의 본당을 방문합니다. 이때 새 차량이 십분 활용될 것입니다. 현재 성 도미니코 신학교에는 총 67명의 신학생이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루사카 대교구의 10개 본당에서 주말을 보내는데, 여기에도 새 차량이 사용됩니다. 세케타 학장 신부의 "차량을 아주 조심해서 다룰 것입니다."라는 약속이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하느님 사랑에 대한 기쁜 응답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필리4.4)

신앙인은 사랑의 역사를 살아갑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따르면, 신앙은 "그리스도의 후계자로 부름 받은 성소를 통해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경이로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사제의 일상생활 안에서, 평생의 헌신적 사랑에 적용됩니다. 교회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마지막 말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저는 지켜보았고 연구했고 노력했으며, 당신에 대해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당신을 거역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한 적이 있다면, 교회가 그것을 수정해 주도록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교회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신학생들은 준비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이미 가슴속에서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으로, 사제들의 수호성인인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말처럼 그들은 사제가 되어 "이 땅에서 구원 사업을 계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제 성소의 핵심이며, 모든 신학교에서 기르고 가꾸는 싹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궁극적으로 관리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인생 여정에 사람들과 동행하는 형제요 아버지를 양성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 서벵갈주에는 이러한 삶을 준비하는 가르멜회 신학생 18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도 전역에서 선교의 수호자인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에게 봉헌된 캘터타의 신학교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영성 안에서 형제들의 일치를 경험하며, 그로부터 삶을 위한 힘을 길어 올립니다. 그들의 일상은 공부와 원예,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사람들의 동반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두려워하는 이를 위로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고, 적에게는 반박하고 불순한 이는 경계하며, 무지한 이를 가르치고 게으른 사람을 일깨우고, 교만한 이는 꾸짖고 실패한 자는 격려하며 싸움꾼을 달래고, 가난한 이를 돕고 억압당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선한 이는 인정하고 악한 사람을 견뎌내고, 오, 모든 이를 사랑합니다!"라고 성 아우구스티노가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양성 과정에도 비용은 듭니다. **신학교에서 연간 80%의 비용까지만 자체 조달이 가능하기에, 나머지 20%인 약 700만 원을 ACN이 지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기쁜 응답은 분명 여러분의 손길이 닿을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이와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고해성사, 영혼을 위한 향유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Patris Corde)」에서 화해의 성사인 고해성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은 우리 안의 나약함을 어루만져 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온유함만이 우리가 고발하는 자의 덫(묵시 12,10 참조)을 피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특히 화해의 성사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해의 성사는 하느님의 진리와 온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진리는 우리를 단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환대하고 감싸 안아 주며 격려해 주고 용서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만나고 우리의 존엄성을 찾아주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위한 잔치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께서 우리의 두려움, 약점, 나약함 안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 본성에의 참여

"주님께 기쁜 노래 들려드려라."

요양원을 방문한 신학생들

"당신처럼 그렇게." 이는 모든 신학생의 목표이자 표어일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르헨티나 메르세데스 루한 대교구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누에베 데 훌리오 교구 출신 신학생 11명 또한 그렇게 되고자 합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눈에 띄게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환경 속에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 받은 신자 중 주일 미사 참례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들의 가슴속에는 유행이나 재물, 권력에의 동경보다도 사도 베드로와 초기 교황들이 '하느님의 본성에의 참여'라고 일컬었던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봉사하기를 갈망하며, 성사와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하느님께 인도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제 서품을 받은 후에 성사를 집전하게 될 것이지만, 신학생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리교사 양성을 맡고, 본당 일을 도우며, 나이 들고 허약해진 사제들을 방문해 함께 미사를 봉헌합니다. 요양원과 병원에도 찾아갑니다. 성모님께서 신학생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함께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라는 옛 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은 아르헨티나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주일 봉헌금은 줄었지만, 그 밖의 모든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신학생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일을 찾아봐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오실 수 있도록 ACN은 신학교에 약 500만 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느님의 친구

"영원한 사제로..."

성지 순례를 이끄는 알렉세이 신학생

'폭넓게, 빈틈없이, 가톨릭 신앙에 충실하게.'

이는 **벨라루스** 흐로드나 교구 신학교의 학문적, 신학적 교육을 위한 기준입니다. 여기에 인격의 성숙이 더해집니다. 이를 위해 흐로드나의 신학생 25명은 우선 매일 아침, 정오, 오후 그리고 저녁에 미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요한 15,15) 그들은 또한 성지 순례에서, 교구 본당에서, 젊은이들과의 기도 모임에서, 고아원과 요양원을 방문하면서, 장애를 가진 이들을 돌보면서, 모든 성인 대축일이나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공동 묘지의 청소를 도우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예수님과의 우정을 돈독히 합니다. 흐로드나에 신학교가 설립된 이후 지난 30년 동안 200명 이상의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하느님의 친구가 된 그들은 계속되는 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벨라루스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벨라루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에서 이 땅의 얼굴을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신학교의 재정이 현재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처했습니다. **ACN은 비탈리 보이초프스키 신학교 학장에게 하느님의 젊은 친구들의 양성을 위해 약 2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악에게는 최종 결정권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류가 겪는 고통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소서. 병들고 가난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고통받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멕시코의 우리 프란치스코회 수녀들은 고통받고 있는 온 인류를 위해 날마다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체 앞에서 영성체를 모시고 성사를 받고 싶은데 성당이 닫혀 있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수녀들도 성찬례 의식을 거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죽음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언제나 빛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며, 악에게는 최종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으며, 그 희망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드러나진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양식

저는 아일랜드의 사제입니다. 「사랑의 메아리」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메아리」에는 고통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ACN이 수행하는 훌륭한 사업들에 대해 가득차 있는데, 이것은 영혼을 위한 훌륭한 양식이 됩니다.

저는 여전히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

시리아의 두 가정을 돕기 위해, 그러면서 여러분의 후원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어제 약 7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사실 이번 달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고, 25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지금의 회사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일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냥 뒤로 기대앉은 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포르투갈도 이런 상황인데, 시리아에는 저보다 훨씬 좋지 못한 형편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과 포르투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과 연결됨을 느낍니다

여러 행사를 통해 ACN에 대해 알게 되어 여러분의 유튜브 영상과 방송을 정기적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ACN의 지원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로 박해를 받고 신앙으로 인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통해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됨을 느끼며, 지금은 훨씬 더 절실하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소외된 이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또한, 저의 믿음에 용기를 주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굳건해집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절실한 하느님의 증인이며, 사회의 소외된 이들에 공감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이 바로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본주의의 눈에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느님께는 그들이 인류 공동의 집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하느님께서 ACN을 통해 제게 오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위한 작은 기부

은행 계좌이체 증명서를 동봉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여러분의 사명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ACN의 활동에 선하신 하느님의 축복이 계속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생일 축하에 대한 감사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뻤고 또 다시 기꺼이 ACN에 기부할 것입니다. ACN의 중요한 활동에 하느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ACN 사순·부활 캠페인

종교적 극단주의로 상처받은 아프리카를 치유하며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지역에 살며, 끊임없는 테러와 급증하는 종교적 극단주의의 위협을 피부로 느낍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돕는 이는 사제, 수도자, 신학생 그리고 교리교사입니다.

ACN은 올해 '종교적 극단주의로 상처받은 아프리카를 치유하며'를 주제로 사순·부활 캠페인을 진행하며 십자가의 길 소책자를 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책을 받아 보시고, 폭력으로 자신의 집과 고향, 가족을 잃은 아프리카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측 링크 또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A5 | 36쪽 | 무료 배포
(재고 소진시 종료)

신청 링크

https://bit.ly/ACNCross

청주교구 서운동성당, 아프리카 교회를 돕기 위해 ACN에 1억 원 기부

청주교구 서운동성당 주임 김웅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와 본당 공동체 그리고 뜻을 같이 한 후원자들이 1억 원을 ACN에 기부하였습니다. 기부금 전달식은 2020년 12월 17일, 서울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본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는 특별히 이번 기부의 목적을 아프리카 교회에 대한 지원에 두었던 김웅렬 신부와 본당 사목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ACN 국제본부가 2021년 사순·부활 캠페인으로 기획한 '종교적 극단주의로 상처받은 아프리카를 치유하며'를 소개하였습니다.

ACN 한국지부, 월간 생활성서 인터뷰

월간「생활성서」2021년 2월호 '더불어 사는 세상'에 ACN 한국지부가 소개되었습니다. ACN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기사는 ACN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